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깨닫고 기뻐 뛰게 기도합니다. 육도 영도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2. 항상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으니, 귀하고 중한 것인데도 깨닫지 못한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깨닫기 위해 간구하여라.
3. 깨달을 때, 비로소 인식관이 확실히 뒤바뀌어서 귀한 것을 바로 알고 보게 된다.
4. 깨닫고 마음과 생각과 인식의 눈을 뜨고 보면, 성령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된다. 성령님은 일생 동안 한 번 보기도 어렵다. 깨달으면, 많이 보게 된다.
5. 깨달은 자는 성령님을 전심으로 생각하며 행한다.
6. 깨닫지 않고 50년을 보느니, 깨닫고 순간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는 봉사로 50년을 보는 것보다, 눈을 뜨고 한 번 보는 것이 나은 격이다.
7. 기도도 알고 깨닫고 하면, 빨리 응답받게 된다. 그러므로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라.

8. 어떤 것은 자신들이 원하고 찾고 소원하던 것을 매일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얻은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깨닫고 기뻐 뛰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더 역사하시
고, 기뻐 함께하신다.